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 : 로마서 12:1-21

요절 : 로마서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1장까지가 교리편이라면 12장부터는 실천편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게 되면 하얀두부를 줍니다. 아마도 앞으로 두부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교도소에서 나왔으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듯이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마땅히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1.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1,2)

1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과 같이 신자로서 살아가야하는 실생활도 오직 은혜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강압적으로 또는 폭력적으로 신천지처럼 모락을 써서 신자의 삶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은 은혜’, ‘경건은 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여 자원하여 헌신할 때, 믿음을 체험하고 경건생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형제들은 군대에 들어가면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역할 때쯤 되면 예전으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관성의 법칙대로 예전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이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동기와 소신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도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충분한 이유와 동기가 필요합니다. 신자의 새 삶을 위한 동기는 무엇일까요? 만일 구원이 취소 될 수도 있기 때문에(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삶을 두렵고 떨림으로만 살아야 한다면 시간이 흐르면서 새 삶을 살려고 하는 동기는 점점 미약해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감정을 소모시키는 정서로 작용하여, 겉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모습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머지 않아 피폐해지기가 쉽습니다. 시간과 함께 차츰 무감각해지고 점점 결국에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원인이 되면, 조금만 일이 꼬이고 틀어져도 이것이 하나

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기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환난으로 인해 얻는 것은 절망과 쓰라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에 바쁘게 됩니다. 두려움에 근거한 신앙생활은 결국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삶을 살기위한 동기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떠합니까? 거룩한 산제물이 아니라 흠결투성이 불량제물은 아닙니까? 늘 허물과 실수 뿐일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산 제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일까요?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고 하면 도저히 나아갈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약의 예배에서는 짐승을 제물로 잡아 드렸습니다. 제물을 잡아 드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제물의 목에 칼을 그어 피를 쏟아 냅니다. 다음에는 가축을 버기고 내장을 다 긁어내고 조각조각 토막을 내어 불에 태워 드려야 했습니다. 바울의 비유는 산 제물의 핵심이 희생과 죽음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죄악된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희생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과 대입해본다면, 자기의 의 피를 쏟아내고 형식과 위선의 두터운 마음 가축을 찢는 것입니다. 마음깊이 숨겨진 정욕과 욕심의 더러운 것들을 긁어내고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거룩하게 바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부를 바치고 무엇이든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제물은 원래 죽어서 바쳐져야 하는데 바울은 산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전 15:31)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며 매일매일 자신의 삶과 몸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는 삶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받으실만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2절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전 세계 사람들의 소원은 로마시민이 되는 것이고 로마사람들처럼 살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세대가 갖고 있는 영적인 속성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38절에서 이 세대를 가리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였고, 누가복음 9:41절에서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대는 불신시대요, 가치관이 전도된 시대입니다. 무엇보다 음란하고 죄 많은 시대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그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따라 살기보다, 갈수록 정욕적이 되고 인본적이 되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대로 살고 있습니다. 또 돈을 사랑하고 돈이 모든 것의 가치기준이 되어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돈 문제입니다. 어제 학생들과 함께 ‘기독교 재정관’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떤 부류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잘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10억을 준다면 감옥에 다녀올 수 있냐고 물었을 때 몇명이나 그렇다고 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고교생의 47%가 그렇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 세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대로 자기 만족을 위해 빚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빚을 내서 차를 사고 빚을 내서 집도 마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성경은 여러곳에서 빚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 가치로 세상을 보는 패러다임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서 세상적 가치 기준을 버리기 매우 힘이 듭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자연스럽게 세상적 가치기준을 따라 살아버립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여 큰 돈을 만지고 싶어합니다. 이 메시지에 찔림이 있으신 분들은 재정부에서 준비한 ‘기독교재정관’을 꼭 필수로 수강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법도를 좇아 사는 자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은 본질적인 형태가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항상 회개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영적인 사람으로 내면이 변화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삶을 사는데 있어서 ‘마음의 새로워짐’, ‘마음의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의 마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알 때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체험을 할 때, 비로소 마음이 새로워지고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변화되면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고 싶은 소원이 생깁니다. 즉 마음이 변화되면 허무하고 무가치한 세상, 썩어질 세상 것들 보다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 뜻을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알고자 애를 씁니다. 구체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분별이란 금을 제련하여 순금을 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면 먼저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의 가시떨기들을 뽑아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직통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서 내면에 있는 죄의 찌꺼기들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써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이미 결심하신 선하고 기쁘고 온전한 뜻(design)을 갖고 계십니다. 마치 아름답고 멋진 건물을 지으려고 작성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건축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뜻을 알려주시고 이 뜻대로 살도록 도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언제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악에 빠지게하고, 나를 괴롭게하고 불완전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현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며 힘들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그길을 인도하고 계신것을 믿는다면 잠시 힘들어질 수 있지만 원망 불평에 사로잡히거나 불안에 떨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인하여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II. 신자의 교회생활(3~13)

3절부터는 경건생활의 각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3-13절은 신앙공동체 안에서의 경건생활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야 합니다.(3) ‘믿음의 분량’이란 ‘각자에게 허용된 믿음’을 말합니다. 각각의 위치와 직분에 맞는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고, 성기는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며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으로 자기 분수를 알지 못하고 넘어져서 축복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회개와 감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각각의 직분과 부르심에 맞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것이 지체의식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는데,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4) 각각의 기능이 다르다고 하여 중요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축구선수들에게는 손보다 발이 중요합니다. 축구선수들의 황금발입니다. 그들에게 손은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손흥민 선수는 있으나 마나 한 것 같은 팔이 부상을 당해 장기 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눈썹 정도는 없어져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매님들이 눈썹 화장을 한번 안해 보십시오. 맨정신으로는 돌아다니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교회는 저마다 다른 역할과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갈등이 필수적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갈등을 많이 겪다 보면 어느새 더이상 상처받고 힘들어 하는 것을 그만 두고 싶어 집니다. 껄끄럽지 않고 불편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되고 결국 혼자만 남게 됩니다. 갈등을 겪지 않으려고 하다보니 서로 다른 역할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부딪치며 함께 하면서 성장하며 체형하는 은혜가 점점 줄어듭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생활이 되고 맙니다. 성장은 갈등과 긴장을 소화하면서 이루어집니다. 믿음의 가정도 그러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갈등하고 그것을 소화하면서 부모는 부모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자식을 웬수처럼 여기고 마음에서 잘라 버리면 부모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성장을 위해 보내신 훈련관이시구나!’ 영접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모습이 비록 다를지라도 믿음의 부모를 목자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귀를 열고 나아올 때 마음이 넓어지고 성숙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지체에 각각의 기능이 있듯이, 교회안에서도 각각의 직분이 있습니다.(6)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말합니다. 어떤 이는 성기는 은사가 있고 어떤 이는 성경선생의 은사가 있습니다.

다.(7) 구제하는 은사, 리더쉽의 은사, 금출을 베푸는 은사가 있습니다.(8) 우리들도 저마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은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몰아주시지 않고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나누어 주시되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 사람이 감당할 만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게 주신 은사를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 너무 과대평가해서 교만해져서도 안됩니다. 은사는 근본적으로 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 말씀에서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모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반면 한달란트를 그대로 둔 종에게는 무엇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신 달란트를 그대로 묵혀놓은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우리 송사라 사모님은 7부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계십니다. 젊은 목자들에 비해서 여러가지로 부족한 것 같지만 한번 배우신 것으로 은사를 열심히 발휘하셔서 7부홈페이지는 전국에서 업데이트가 가장 빠릅니다. 누군가 사진을 카톡에 올리면 바로 다음날에는 어김없이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김인덕목자님은 김주일 목자님과 함께 주일예배때 조용히 뒤에서 프리젠테이션과 함께 영상을 녹화해주고 계십니다. 들리지 않고 아무말없이 조용히 헌신하시는 목자님의 뒷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은사를 살려서 교회의 일 한부분을 감당해 주시는 목자님들을 볼 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 7부 목자님들은 누구 할 것 없이 알게 모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셔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교회 안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잘 활용되어서 교회가 더욱 풍성케 되길 기도합니다.

9절을 다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거짓이 없다는 말은 위선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속으로는 무시하면서 겉으로만 공손하게, 따뜻한 척해서는 안됩니다. 진절환 문화는 교회는 물론 세상의 공동체안에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서로 상냥한 척 하면서 속으로는 중상과 비방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참된 사랑은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같은 문장에서 사랑도 하고 미워도 하라는 것이 이상할 수 있지만 미워하지 않고서는 올바르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한 사람이 신천지라고 하는 악에 미혹되어 있다면 그 악을 미워하여야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도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짓으로 사랑하는 척 하든지 아니면 좋아하는 사람만 선별적으로 사랑하든지 둘중 하나입니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뒤에서 그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비방하여 아픔과 상처를

주는 일이 더이상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마음에 맞는 사람만 가려서 선별적으로 사랑해서도 안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짓된 사랑을 해 왔음을 애 통히 회개하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아끼며 끌어안아 뜨겁게 동역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거짓없이 사랑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았을 때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사랑스럽지 않는 사람을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회개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따뜻해 지게 될 것이고, 거짓없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들도 거짓없이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되 서로 먼저하기에 힘써야 합니다.(10) 10절에서 '서로 먼저'가 중요합니다. 서로 먼저 하려고 하지 않으면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할 기회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므로 부지런해야 합니다.(11)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사랑은 마치 불꽃과 같아서 열심을 낼수록 더 많은 기쁨과 감동을 가져오고 더 많은 사랑을 불러오게 합니다. 반면 안일과 나태에 사로잡혀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면 있던 사랑마저 꺼져 버리고 가까이에 있는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손과 발을 움직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섬겨야 합니다. 소망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항상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12)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날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나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며, 장차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힘들게 산다는 생각에 짓눌리지 말고 긍정의 생각을 하고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나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돕기에 힘써야 합니다.(13) 김항식 전 국무총리의 어머니는 거지가 집에 왔을 때 자식들이 "거지가 왔다"고 말하면 "손님이 왔다고 해야지 거지가 왔다고 하면 되겠느냐?" 책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처럼 대접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되 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동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잘 대접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손님이 오지 않는 집에는 천사도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들을 하나님의 천사들로 여기고 잘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III. 선으로 악을 이기라(14~21)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다른 사람이 자신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박해하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화가 나고 미움이 생기고 복수하고 싶어집니다. 때로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저주를 퍼

붓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주하고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고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악한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주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원한을 갖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여러 번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이 원칙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나발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에도 아비가일의 도움으로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비록 악할지라도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도록 기도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는 것과 같습니다. '머리에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더욱 무서운 불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당시에는 가정에서 화로를 사용했습니다. 불을 피우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피워두었습니다. 부주의로 불을 꺼뜨리면 옆집에 화로를 들고 가서 숯불을 빌려왔습니다. 옆집에 마음씨 좋은 이웃이 살면 화로에 숯불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숯불이 담긴 화로를 이마 높이까지 쳐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집에 오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원수일지라도 미워하지 않고 선을 베풀면 앙심에 가책을 받아서 얼굴이 붉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자녀가 된 우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21).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때에 주위에 소외된 이웃,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